

2월 이후 여행사이트 방문자 수 지속적으로 증가...

여름 성수기 맞아 기대감 증폭

지난해 말 동남아 지진해일 등으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여행사이트는 불안한 출발을 보였으나, 2월 이후 징검다리 연휴 피크와 여행자들의 저가상품 및 동반자 반값할인, 사전할인 예약 등 다양한 이벤트와 주5일근무제 확대실시 등에 힘입어 네티즌들의 방문이 늘고 있다.

특히 여행 비수기인 3월에도 여행사이트를 찾는 방문자 수는 줄지 않고 상승했는데, 이는 저가상품 및 신규 기획상품 등의 이벤트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여행사이트 내에서 숙박정보, 관광정보, 교통정보 및 문화생활, 일정까지 계획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를 제공, 네티즌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한 것도 상승세의 요인이 됐다.

기존 신문 광고, 박람회, 설명회 등을 통한 오프라인 영업 방식에서 이제 온라인은 기본이고 TV 홈쇼핑, 모바일 등의 새로운 채널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는 여행업계는 특화된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마케팅 전략을 진행하며 치열한 경쟁구도를 만들고 있다.

여행사이트 순위는 하나투어와 투어익스프레스, 넥스투어가 치열한 선두경쟁을 펼치고 있다. 5~10 위권의 사이트 경쟁은 더욱더 치열한데, 각 여행사별로 이벤트 및 상품 기획력에 따라서 주간 순위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일평균방문자수를 살펴보면 하나투어와 투어익스프레스가 각각 18만, 21만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투어익스프레스는 3월 이후 연속적으로 일평균방문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넥스투어, 모두투어는 각각 13만, 9만 정도의 일평균방문자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웹투어, 여행사닷컴, 온라인투어,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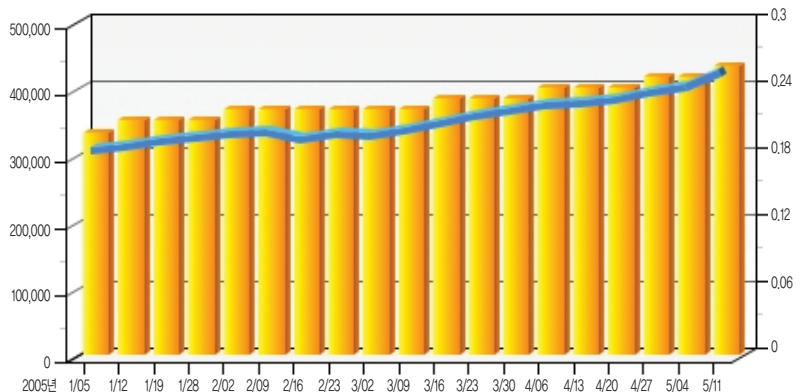
캐빈, 롯데관광, SK투어비스 등이 평균 5만 정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여행 카테고리의 지난 13개월의 온라인 트렌드를 살펴보면 여름 휴가철 시즌이 있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가 최대 성수

기(평균 200만 방문)였다. 올해는 100년 만에 찾아오는 무더위가 예상돼 이번 여름시즌의 네티즌들의 여행에 대한 관심은 최고점을 이를 전망이다. ●

글 이준호 랭키닷컴 연구원

〈그림 1〉 여행사이트 일평균방문자수 합계 및 전체 점유율



〈그림 2〉 각 여행사이트 일평균방문자수

